

# 전북 농산물의 품격, GAP로 말하다

### 도, 소비자가 찾는 안전농산물 공급위해 17억원 투자 전국 최초 농산물 품질관리자 대상 자격증 교육 실시

전북도는 최근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 예산 17억원을 투자해 GAP인증을 확대하고, GAP인증 관리에도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이란 용수와 토양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유해 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생산단계부터 수확, 수확 후 관리와 유통의 각 단계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이다.

전북도는 시중에 유통되는 도내 농산물의 안전 관리와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하는 '믿고 사는 전라북도 농산물' 확대를 위해 올해 17억원을 투자한다.

작년까지는 도내 농산물의 품질향

상과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생산 기반 구축에 집중했다면, 올해부터는 GAP인증 컨설팅과 농산물 품질관리자 역량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도내 GAP인증의 지속적인 확대와 인증능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소비자의 '안전 농산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GAP 인증 심사원 자격 교육을 오늘부터 4일간 실시한다.

대상은 시군 조공법인과 지역농협의 농산물 품질관리 실무자이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를 통한 단과도 현장실무자 대상 GAP 자격 취득 교육은 전국 최초이다.

이번 교육은 수료 후 평가를 통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되는 수료증이 수여되며, 교육수료자는 농

업현장에서 GAP 인증기준에 맞춘 농가 컨설팅과 농산물 품질관리 및 유통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의 GAP 인증농가는 2019년 1월말 기준 1만401농가이며, 인증면적은 1만3천601ha로 전국의 13%를 점유한다.

올해 GAP 인증을 받기 위해 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청한 농가는 807농가로 쌀 이외에 과채류와 과일의 인증면적을 늘리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GAP 농산물이 그 답이 되었고, 올해 역점으로 추진하는 공공급식과 학교 과일간식도 안전성이 확보된 GAP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이다"며, "농업현장에서 GAP인증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안전농산물의 홍보를 통해 GAP농가의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 앞서 차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우균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원형 조계종 총무원장, 문 대통령, 김영근 성공관장,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정희 천도교 교령,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 “종교인 적극 참여로 3·1운동 100주년 뜻깊게 기념”

### 최대통령, 7대 종단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서 기대감 나타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3·1운동 100주년 기념식과 관련해 “종교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국민 모두 100주년을 더욱 뜻깊게 기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7대 종단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3·1절 정오에 전국 종교시설에서 시간에 맞춰서 일제히 타종이 거행될 예정이라고 들었다. 3·1 독립선언에 대한 기념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7대 종단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2017년 12월 이후 2년 여 만이다. 종교계 인사들이 과거 3·1운동을 함께 했던 역사적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첫 오찬 간담회를 언급하며 “지난번 비었을 때는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안팎으로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우는 시건이었다”며 “한반도 상황도 살얼음

판을 밟듯이 아주 조심스러웠다”고 돌아봤다.

이어 “눈앞에 다가온 평화 동계를 립박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평화와 화합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절박함이 아주 컸다”며 “가장 필요할 때 종교계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셨고, 또 평화의 여정에서도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종교지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올해 종교의 역할과 의미가 더욱 특별하게 와 닿는다”며 “100년 전 3·1 독립운동에 앞장선 민족대표 33인은 모두 종교인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초로 3·1 만세 시위를 벌인 서울·평양·진남포·안주·의주·선천·원산 등 각지에서 종교가 먼저 하나가 됐다”며 “그러자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았고 남녀노소, 빈부귀천과 상관없이 함께 독립선

언서를 인쇄하고 또 태극기를 제작했다”고 덧붙였다.

또 “밤어사 등 전국 사찰에서 독립자금을 모았고, 원불교도 모금활동을 전개해서 성직자들이 육교를 치르기도 했다”며 “천도교는 300만 명에 이르는 전국 교인들이 논과 밭, 황소를 팔아서 헌금을 모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교계의 헌신으로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연대와 협력의 역사가 만들어졌다”며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질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 선조들이 꿈꿨던 나라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다. 국민 모두 골고루 잘살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나라”라며 “국민과 함께 이 꿈을 꼭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 계신 종교지도자들에게서 지혜를 나눠주시고, 또 국민 통합의 길을 열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1

## 지역의 유망기업, 글로벌 리더로!

### 전북도, 강소기업 모집... 해외마케팅 국비 최대 2억원 지원

전북도는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2019년 글로벌 강소기업을 모집한다.

“글로벌 강소기업”은 지역의 유망기업을 글로벌 리더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으로, 도내 기업 중 올해 6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직전년도 매출액 100억원~1,000억원과 직·간접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혁신형 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매출액 50억원

~1,000억원과 직·간접수출액 100만불 이상인 기업도 신청 가능하다.

1차 서류심사를 거쳐 2차 글로벌 역량을 진단하는 현장평가, 마지막으로 기업의 성장가능성, 역량 및 고용에 대한 발표평가의 3단계를 거쳐 강소기업에 선정된다.

선정된 기업은 4년 지정기간 동안 중앙공모 선정을 통해 해외마케팅(국비 4년간 최대 2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3천만원 이내의 도비 추가 지원을 통해 글로벌 진출을 위한 다양한 기업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신청서류는 3월 8일까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온라인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와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북도 이남섭 기업지원과장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육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도내 유망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매출성장과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을 통해 최근 5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4.18%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공모사업 과제 선정을 통해 총 62.9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진성 기자

## 전북 혁신도시, 금융도시 비전을 품다

### 내일 특화발전 모델 구축 토론회 개최... 발전 전망 발표·토론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전북 혁신도시 특화발전 모델 구축 토론회'가 20일 오후 2시에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에는 도청 및 시군 관계공무원,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금융전문가 등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며, 특히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직접 토론회에 참여해 개회사를 하고,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날 토론회는 개회사 및 축사에 이어 발제, 토론 등의 순서로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전주대 경영학과 정희준 교수가 '전북 혁신도시의 금융도시 발전 전망'이라는 주제로, 부경대 경영학부 이유태 교수가 '금융중심지 정책 진단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또한 토론의 좌장은 금융정책분야 전문가인 송실대 경제학과 은기운 교수가 맡았으며, 성공관대 박덕배교

수,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최성근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으로, 전라북도가 준비하고 있는 금융중심지 지정 대응 전략 수립에 어떤 도움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최근 금융연구원에서 제출한 금융중심지 타당성 용역 결과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내부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여부가 상반기 중에 결정이 날 것이며, 전라북도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준비 일환으로 이번 토론회를 갖게 됐다”고 개최 배경을 밝혔다. /김진성 기자

## 조합원에게 버섯세트 제공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버섯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예정자 A씨를 18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제시선거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는 올해 초 설 명절 선물 명목

으로 조합원 40여명에게 각 2만원 상당의 버섯세트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2018. 9. 21.~2019. 3. 13.)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전북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완주군 공고 제2019-244호

###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1.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 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조서

구분	구분	기적	변경	변경률	구분비(%)	비고
합계		822,224,494	-	822,224,494	100.00	-
도시지역		150,497,709	-	150,497,709	18.30	-
농지		1,337,754,111	-	1,337,754,111	16.25	-
관리지역		45,080,182	-	45,080,182	5.48	-
생산지역		29,903,414	-	29,903,414	3.64	-
계획관리지역		58,593,945	-	58,593,945	7.13	-
농림지역		491,972,244	-	491,972,244	59.83	-
자연환경보전지역		46,177,000	-	46,177,000	5.62	-

나. 군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구분	종류	공적면적	사설면적	합계	변경	변경률	최소면적	비고
신설	1	공익	수변	743,000	-	743,000	0.09	-

다.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시설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면적비(%)	비고
합계	20,253	700.3	1,030	조
공원시설	7,752.0	700.3	1,030	조
도로및방장	3,934.1	-	-	-
조경시설	594.3	-	-	-
휴양시설	192.0	-	-	-
편익시설	3,027.3	700.3	1,030.0	조
특기	12,500.8	-	-	-

라. 결정(변경)사유서: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 결정  
 마. 공원조성계획: 기계생태(열람장소)비치

2. 열람(견제)기간: 신문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3. 열람(견제)장소: 완주군청 도시개발과, 문화관광과, 화산면사무소
4. 관계도서: 상용생태(열람장소)비치
5. 의견제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도시개발과(☎063-290-28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19일 완주군 수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